

# 2020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분기 전망

I. '20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II. '20년 2분기 수출 전망

III. 수출기업 애로사항

---

**작성**

선임연구원 김윤지 (02-3779-6677)

조사역 김찬원 (02-3779-5709)

---





## <요약>

### I. '20년 1분기 수출 실적 평가

#### 1분기 수출 전년동기대비 1.4%, 전분기대비로는 3.7% 감소

- 2020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1,327억 달러) 대비 1.4% 감소, 전분기(1,364억 달러) 대비로는 4.1% 감소한 1,308억 달러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단가 회복** 및 세계적인 비대면 생활양식 전환으로 인한 **IT품목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1분기 수출은 전년동기 실적에 근접

※ 월간 수출증감률(%): △15.0('19.10)→△14.5(11)→△5.3(12)→△6.6('20.1)→3.8(2)→△0.7(3)

#### 1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전기대비 24p 감소

- 1분기 수출 업황 평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18p, 전기대비 24p 하락한 **70**으로 2009년 1분기 73 이후 최저치 기록
- 수출 업황 평가지수는 수출대상국 경기둔화로 **수출물량**, **수출계약**이 부진하고, 원화 환율 변동 등으로 **수출원가**가 **악화**되면서 전기대비 하락

####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분	'17				'18				'19				'20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수출업황 평가지수	92	98	96	96	92	97	92	94	88	94	93	94	70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92	95	95	94	91	96	95	97	91	95	93	92	80
수출단가 평가지수	99	99	102	95	102	102	102	99	99	100	101	98	100
생산원가 평가지수	111	108	113	110	115	114	112	108	110	109	108	106	106
수출물량 평가지수	94	100	97	98	92	100	93	97	86	96	93	95	68
수출계약 평가지수	93	100	96	98	93	100	94	97	87	95	92	96	68
자금사정 평가지수	97	96	95	98	96	96	95	97	95	96	95	98	83



- 산업별로는 철강/비철금속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채산성 악화, 자동차, 선박, 섬유류 등 모든 업종에서 수출 물량 감소

### 산업별·기업규모별 수출업황 평가지수

구분	전기 전자	기계류	철강· 금속	석유 화학	자동차	섬유류	플랜트· 해건	신재생 에너지	선박	대기업	중소 기업
'19.4Q	92	96	83	89	92	104	109	103	114	97	94
'20.1Q	68	67	66	72	64	81	78	88	70	73	69

## Ⅱ. '20년 2분기 수출 전망

### 2분기 수출선행지수 전년동기대비 0.4%, 전기대비 0.8% 하락

- '20년 2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17.5로 수출 경기의 기준이 되는 전년동기대비로는 0.4% 하락, 전기대비로도 0.8% 하락
- 수출선행지수가 2분기 연속 하락하고 수치 절대 수준도 낮아 수출 둔화세는 계속 유지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충격이 2분기에 접어 들면서 심화되고 있어 실제 수출 하락 폭은 선행지수 하락 폭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

### 수출 선행지수 추이

구분	2018				2019				2020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수출선행지수	117.1	120.1	121.9	123.2	123.6	117.9	119.4	119.4	118.4	<b>117.5</b>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7.2	3.7	8.3	6.3	5.5	△1.8	△2.1	△3.1	△4.2	△ <b>0.4</b>
전기대비 증감률(%)	1.1	2.6	1.5	1.1	0.3	△4.6	1.2	0.0	△0.9	△ <b>0.8</b>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의 전기대비차(p)	△0.6	△3.5	4.6	△2.0	△0.8	△7.4	△0.3	△1.0	△1.2	<b>3.8</b>

주 : 수출선행지수는 신규 수치 산출시 과거 선행지수 수치도 함께 변경



## 코로나19 확산 영향 확대로 글로벌 경기 위축·유가 급락으로 수출 단가 하락 지속

- **수출대상국 경기** :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중국은 2~3월, 미국·유로존 등은 3월 경기선행지수 하락, 1분기 WTO 상품무역지수도 전분기 대비 하락
  - 1분기의 경우 1~2월 수치는 비교적 안정적인 가운데 3월 수치 하락만 반영되었으나, 세계적인 고강도 사회 격리, 소비 위축 등으로 3월 이후 경기 및 무역량은 더 크게 위축 가능
  - ※ 수출대상국 경기지수(2010=100) : 148.2('19.11)→148.8(12)→147.7('20.1)→147.8(2)→ **136.8(3)**
  - ※ Goods Trade Barometer(WTO, 2010=100) : 96.3('19.1Q)→ 96.3(2Q)→ 95.7(3Q)→ 96.6(4Q)→ **95.7('20.1Q)**
- **수출용 수입액 지수**는 3월부터 유가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향후 감소세 전환 전망
  - ※ 수출용 수입액지수(2010=100): 93.5('19.10)→95.0(11)→100(12)→106.8('20.1)→96.3(2)→**90.1(3)**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1월(52.0)과 2월(49.8)에는 전년 하반기 수준을 소폭 상회하며 상승세를 보였으나, 3월 전년동월대비 26.5% 하락한 42.2, 4월은 47.6% 하락한 27.1
  -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 : 49.1('19.10)→47.2(11)→46.8(12)→52.0('20.1)→49.8(2)→**42.2(3)→27.1(4)**
- **가격 경쟁력** : 주요국 경제 침체 전망 속에 안전자산인 달러화 강세가 이어져 1분기 평균 원 달러 환율은 전년동기대비 6.1% 상회한 달러당 1,193.6원을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소비 위축 심화 등으로 가격 경쟁력 효과는 일정 상쇄
  - ※ 원/달러환율(분기평균) : 1,125.1('19.1Q)→1,165.9(2Q)→1,193.2(3Q)→1,175.8(4Q)→**1,193.6('20.1Q)**
  - ※ 원/달러환율(월 평균) : 1,167.5('19.11) → 1,175.8(12) → 1,164.3('20.1) → 1,193.8(2) → **1,220.1(3)**
- **수출물가** : 반도체 단가는 상승 전환했으나, 유가 급락 효과가 2분기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출물가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 수출물가지수 추이(2015=100, 달러기준)
    - : 94.4('19.10)→ 93.7(11)→ 93.7(12)→ 94.0('20.1)→ 92.5(2)→ **89.5(3)**
  - ※ 수출물가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달러기준)
    - : △6.3 ('19.1Q) → △8.3 (2Q) → △10.6 (3Q) → △9.6 (4Q) → **△8.1 ('20.1Q)**
- **D램 단가**는 1분기부터 반등을 지속해 6월 이후 전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올 3분기까지는 상승을 이어갈 전망, 단 코로나19발 경기 침체와 스마트폰 구매 감소가 심화될 경우 가격 하방 전환 가능
  - ※ D램 가격 전망(\$, DDR4\_8Gb 고정가격, D램 익스체인지) : 2.84('20.1)→ 2.94(3)→ 3.29(4)→ 3.38(7)→ 3.25(10)
- **유가**는 4월 OPEC+가 감산에 합의했으나 근본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위축이 회복되기 전에는 공급과잉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 주요 기관들의 2020년 평균 유가 전망도 배럴당 30~40달러대 수준으로 하향했으며 당분간 하향세 지속 전망
  -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70.9('19.4)→64.9(12)→64.3('20.1)→54.2(2)→33.7(3)→**20.6(4)**



- **주요 산업** : 반도체는 단가 상승 및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수요 증가 측면도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 위축에 따른 소비 감소 및 5G 통신망 구축 지연 등으로 수요 증가 제한적, 자동차는 해외 공장 섯다운 및 주요국 딜러 휴업 지속, 소비 위축 영향으로 수출 급감 가능

※ 반도체 수출물량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9.7 ('19.9)→ 9.6 (10)→ 11.4 (11)→ 32.0 (12)→ **41.6 ('20.1)→ 51.2(2)→ 25.3(3)**

- 석유화학, 석유제품은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소비 수요 감소와 국제 유가 급락으로 수출 단가 및 수출액 하락 불가피, 동 품목이 우리 수출에서 약 15% 내외라 전체 수출액 하락 견인 전망

### '20년 2분기 수출액 전년동기대비 13~15% 하락 전망

- 수출선행지수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세계 경기 위축, 국제 유가 하락세 유지 등으로 2분기 수출은 하락 폭을 확대해 전년동기대비 13~15% 내외 감소할 전망
- 2분기에 미국·EU 등 주요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회 봉쇄에 의한 수요 감소도 본격적으로 나타나 수출 감소 효과는 2분기에 가장 크게 반영될 것으로 예측
- 2분기 첫 달 감소 효과가 가장 크고 분기 후반으로 갈수록 사회 봉쇄령 해제 및 각국의 부양 정책 가시화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투자 부진'(66.3%), '원화환율 불안정'(32.6%) 순

- 산업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투자 부진'의 응답률이 가장 높음
- 전기대비 '원화환율 불안정(32.6%)', '원재료 가격 상승(5.5%)', '개도국의 저가공세(24.2%)' 응답이 각각 4.0%p, 3.3%p, 0.2%p 증가
- (산업별) 선박(52.0%), 해운(38.5%), 문화컨텐츠(41.7%) 등 업종에서는 '원화환율 불안정' 응답률 상승, 신재생에너지(43.8%), 플랜트/해외건설(18.5)% 등에서는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 응답률 상승
- (규모별)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투자 부진'을 각각 70.3%, 65.6%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응답



## I. '20년 1분기 수출 실적 평가

### 1. 수출실적 및 관련지표

#### 1분기 수출 전년동기대비 1.4%, 전분기대비로는 3.7% 감소

- 2020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1,327억 달러) 대비 1.4% 감소, 전분기(1,364억 달러) 대비로는 4.1% 감소한 1,308억 달러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단가 회복** 및 세계적인 비대면 생활양식 전환으로 인한 **IT품목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실적에 근접
- **3월 수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한 위축이 우려됐으나, **중국 공장 조업이 대부분 재개**되고 **기계약품 수출 물량 인도** 등으로 미국·유럽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출 감소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전년동월대비 0.2% 감소**로 선방
- 우리 수출은 전년 10월(△15.0%)을 저점으로 점차 개선세를 나타내 설연휴가 있었던 1월(△6.6%)에는 감소폭이 유지됐으나, 2월(3.8%)에는 플러스 전환이 되는 등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다면 1분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았음.

※ 월간 수출증감률(%): △15.0('19.10)→△14.5(11)→△5.3(12)→△6.6('20.1)→3.8(2)→△0.7(3)

#### 수출실적 관련지표 추이

구분	2018				2019				2020
	1/4	2/4	3/4	4/4	1/4	2/4	3/4	4/4	1/4
수출액	1,451	1,516	1,536	1,546	1,327	1,385	1,347	1,364	<b>1,308</b>
증가율(%)	9.8	3.1	1.7	7.7	△8.5	△8.7	△12.3	△11.8	<b>△1.4</b>
수출물가지수	106.8	107.2	107.0	103.9	100.1	98.4	95.7	94.0	<b>92.0</b>
증가율(%)	5.7	5.5	4.2	△1.0	△6.3	△8.2	△10.6	△9.6	<b>△8.1</b>
수입물가지수	109.3	113.1	112.7	110.1	107.8	108.0	104.7	103.8	<b>99.6</b>
증가율(%)	8.0	12.7	11.7	4.7	△1.5	△4.5	△7.1	△5.7	<b>△7.6</b>
수출물량지수	107.4	113.5	114.3	115.6	104.6	110.3	111.1	115.5	<b>110.8</b>
증가율(%)	5.2	8.2	4.1	7.0	△2.6	△2.9	△2.8	△0.2	6.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주: 수출액은 억 달러,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출입물가지수는 달러화 기준 (2015=100)



### 코로나19 영향으로 무선통신 호조·반도체 회복세, 유가 하락으로 석유화학·석유제품 부진

- 반도체(0.6%)는 D램 고정가격이 1분기에 상승세로 전환되고 지연됐던 북미 데이터 센터의 투자 재개 및 코로나19발 재택근무·원격교육 확대에 의한 서버용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0.6% 증가

※ D램 가격(\$, DDR4\_8Gb, 고정가격) : 6.0('19.1)→2.81(10)→2.81(12)→**2.84('20.1)→2.88(2)→2.94(3)**

- D램 가격은 점차 상승해 6월경 전년 동기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나, 서버용 메모리와는 달리 스마트폰 및 PC 출하량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어 수출액의 큰 폭 상승을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 석유화학(△9.0%)과 석유제품(△4.3%) 수출은 OPEC 감산 합의 실패로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수출 단가가 떨어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석유 수요도 감소함에 따라 하락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66.9('19.3)→70.9(4)→64.9(12)→**64.3('20.1)→54.2(2)→33.7(3)**

- 자동차(△11.5%)는 SUV 및 전기차 수출은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1월 설연휴로 인한 조업 일수 감소, 2월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공장 가동 중단·국내 생산 휴업 등으로 큰 폭 감소
- 3월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유럽,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해외 공장은 가동을 중단해 해외 판매액은 크게 줄었으나, 기계약된 국내 수출 인도량에는 반영되지 않아 플러스(3.0%) 기록
- 무선통신기기(△1.2%)는 국내 신제품 출시 효과 및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쇼핑, 게임 등의 증가로 2~3월 연속 증가세 지속

###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감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분	'18. 1/4	2/4	3/4	4/4	'19. 1/4	2/4	3/4	4/4	'20. 1/4	1월	2월	3월
반도체	45.9	40.2	30.3	8.3	△21.4	△23.6	△30.2	△27.6	0.6	△3.4	9.4	△2.7
석유화학	8.1	18.6	11.0	10.9	△10.3	△15.9	△16.4	△16.2	△12.2	△17.2	△9.9	△9.0
일반기계	9.1	8.1	10.1	13.4	0.5	0.4	△4.3	△3.6	△0.1	△5.1	10.6	△3.8
무선통신기기	△23.1	△18.1	△16.9	△31.5	△27.2	△21.0	△16.7	△3.7	△1.2	△23.2	8.0	13.3
디스플레이	△15.5	△16.0	△2.1	△6.8	△11.6	△13.8	△19.8	△21.1	△20.7	△26.8	△21.8	△12.8
자동차	△4.5	△6.6	△13.1	17.7	4.7	9.1	10.3	△1.4	△11.5	△22.2	△16.6	3.0
선박류	△1.1	△76.9	△68.3	2.0	△24.6	49.3	39.1	△41.0	9.5	59.0	8.0	△31.4

자료: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 기계약 수출 물량 인도, 코로나19 관련 수요 증가 등으로 미국·일본 수출 선방

- **중국 수출(△7.8%)**은 코로나19 확산으로 1~2월 공장 가동 중단 및 이로 인한 부품 공급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부진을 지속했으나 3월 대부분의 공장 조업이 재개됨에 따라 수출 감소폭은 축소
- **미국 수출(6.5%)**은 자동차 판매 호조, 미국 내 의료기기 및 보호장비 생산을 위한 기계 수요 급증, 반도체 재고 확보 등의 영향으로 2~3월 연속 수출 증가
- **일본(1.9%)**은 1~3월 나프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호조, 2018년 국내기업이 발주한 LNG 선박 인도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 전환
- **EU(△3.3%)**는 전기차 수출 호조 지속, 코로나19로 인한 가전제품용 반도체 및 컴퓨터 수요 증가 등으로 3월 수출이 증가하면서 1~2월 수출 감소폭 축소

##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감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분	'18. 1/4	2/4	3/4	4/4	'19. 1/4	2/4	3/4	4/4	'20. 1/4	1월	2월	3월
중국	14.8	27.5	17.8	△0.5	△17.3	△16.8	△20.2	△9.4	<b>△7.8</b>	△10.9	△6.7	△5.8
미국	△3.2	5.6	△1.0	23.5	12.9	2.3	△3.2	△5.9	<b>6.5</b>	△7.4	9.8	17.3
일본	16.2	14.1	9.4	15.9	△6.0	△6.6	△4.1	△10.4	<b>1.9</b>	△6.6	△0.4	13.9
아세안	12.9	△0.3	△1.7	10.7	△2.4	△4.7	0.5	△12.9	<b>4.9</b>	9.4	6.8	△1.9
EU	14.9	△7.4	△3.7	27.6	△3.8	△5.9	△0.9	△21.3	<b>△3.3</b>	△16.3	△2.1	10.0
베트남	17.5	△11.9	0.7	4.3	△3.6	0.0	5.7	△5.6	<b>3.2</b>	1.5	10.4	△1.4
중동	△11.0	△6.1	△5.3	△21.8	△26.4	△25.6	△23.9	6.9	<b>△0.5</b>	△9.8	0.1	7.9
CIS	10.9	△4.6	18.0	54.5	31.3	33.5	20.4	14.1	<b>3.8</b>	5.1	12.2	△5.9

자료: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 수출 물량은 반도체 등 증가로 전년 수준 상회, 수출 물가는 유가 영향으로 하락 지속

- 수출물량지수는 전년동기대비 **5.7%** 증가하면서 4분기 연속 감소세에서 전환
- 반도체(38.6%) 물량은 3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두자릿수 증가세를 계속 유지, 석탄 및 석유제품(11.4%) 도 증가세 전환, 운송장비(△6.5%)는 감소세 지속

※ 수출물량지수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 △2.5('19.1Q)→△2.9(2Q)→△2.9(3Q)→△0.2(4Q)→**5.7('20.1Q)**

※ 수출물량지수 증감률(전기대비, %) : △9.5('19.1Q)→ 5.2(2Q)→ 0.7(3Q) →4.1(4Q)→**△4.1('20.1Q)**

※ 반도체 수출물량지수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 5.1('19.1Q)→16.0(2Q)→ 15.9(3Q)→16.5(4Q)→**38.6('20.1Q)**





- 수출물가는 반도체 단가는 상승했으나 유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달러화 기준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8.1% 하락하며 6분기 연속 하락세 유지, 원화기준으로는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달러 기준보다 하락폭은 축소(△2.9%)됐으나 5분기 연속 하락

※ 원/달러환율(분기평균) : 1,125.1('19.1Q)→1,165.9(2Q)→1,193.2(3Q)→1,175.8(4Q)→**1,193.6('20.1Q)**

※ 수출물가지수(원화) : 99.6('19.1Q) → 101.5(2Q) → 101.1(3Q) → 97.7(4Q) → **96.7('20.1Q)**

- 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도 유가가 전년동기대비 20.1% 하락했으나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하락 폭을 축소해 전기대비 2.7%, 전년동기대비 2.1% 하락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63.4('19.1Q)→ 69.7(2Q) → 61.3(3Q) → 62.1(4Q) → **50.4('20.1Q)**

※ 수입물가지수(원화) : 107.3('19.1Q) → 111.4(2Q) → 110.7(3Q) → 108.0(4Q) → **105.1('20.1Q)**

##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 가. 전체 수출 업황

#### 1분기 수출 업황 평가지수 전년동기대비 18p · 전기대비 24p 하락

- 1분기 수출 업황 평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18p, 전기대비 24p 하락한 70으로 2009년 1분기 73 이후 최저치 기록
- 수출 업황 평가지수는 설문 대상 수출 기업들의 전반적인 수출 업황에 대한 평가(매우 개선, 개선, 비슷, 악화, 매우 악화)를 기초로 산출하며, 2010년 2분기 117을 최대치로 기록한 이후 최근 3년간 88~98 수준에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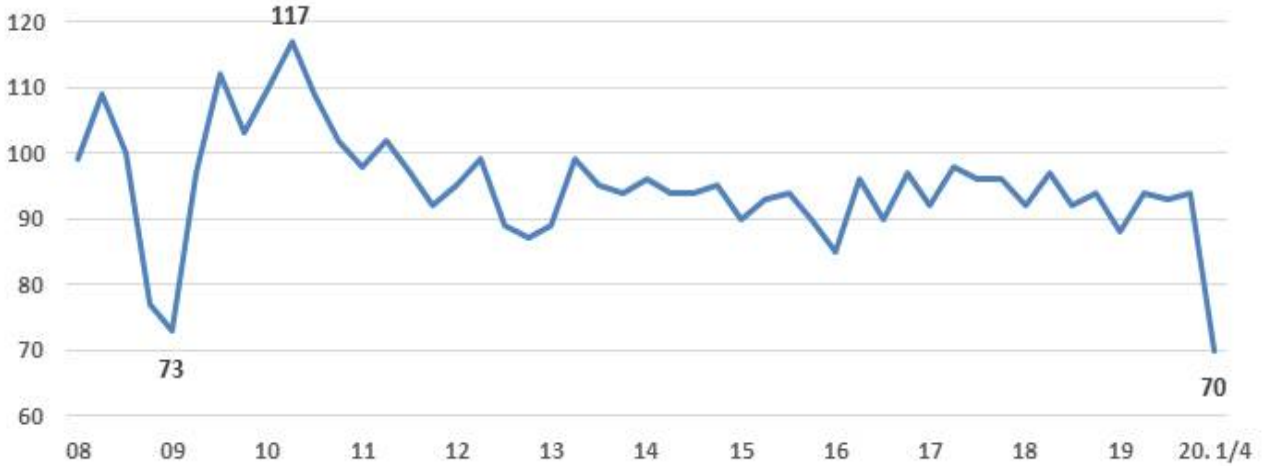
####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분	'17				'18				'19				'20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수출업황 평가지수	92	98	96	96	92	97	92	94	88	94	93	94	70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92	95	95	94	91	96	95	97	91	95	93	92	80
수출단가 평가지수	99	99	102	95	102	102	102	99	99	100	101	98	100
생산원가 평가지수	111	108	113	110	115	114	112	108	110	109	108	106	106
수출물량 평가지수	94	100	97	98	92	100	93	97	86	96	93	95	68
수출계약 평가지수	93	100	96	98	93	100	94	97	87	95	92	96	68
자금사정 평가지수	97	96	95	98	96	96	95	97	95	96	95	98	83

주: <부록>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참고



###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 1분기 수출 업황 평가지수는 수출대상국 경기둔화로 수출물량, 수출계약이 부진하고, 원화 환율 변동 등으로 수출원가가 악화되면서 전기대비 하락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원화 환율이 상승했으나 수출단가(원화기준, 100)의 상승 영향보다 생산 원가(원화기준, 106) 부담이 더 커져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80으로 전기대비 12p 하락
  - (수출물량 평가지수) 전년동기대비 18p, 전기대비 27p 하락한 68
  - (수출계약 평가지수) 전년동기대비 19p, 전기대비 28p 하락한 68
  - (자금사정 평가지수) 전년동기대비 12p, 전기대비 15p 하락한 83

### 나. 규모별·산업별·지역별 수출 업황

**기업규모별 : 전기 대비 대기업은 24p, 중소기업은 25p 하락**

- 수출채산성은 대기업·중소기업이 모두 13p 하락, 수출물량은 대기업 32p, 중소기업 26p 하락

**산업별 : 전기전자 · 기계 · 자동차 등 모든 산업군에서 하락**

- 수출채산성은 철강/비철금속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악화되었고, 수출물량 또한 자동차, 선박, 석유류 등 모든 업종에서 감소

**지역별 : 일본 · 유로존 · 동남아 등 모든 조사 지역에서 하락**

- 일본과 미국, 유로존 등 대부분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 채산성과 수출물량이 동반 하락, 중남미 지역 수출 기업은 수출 채산성 상승



###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 업황 평가지수

구분		수출업황 지수		수출채산성 지수		수출물량 지수	
		'19. 4/4	'20. 1/4	'19. 4/4	'20. 1/4	'19. 4/4	'20. 1/4
전 체		94	70	92	80	95	68
규모	대 기 업	97	73	94	81	107	75
	중 소 기 업	94	69	92	79	93	67
산업	전 기 전 자	92	68	93	74	95	67
	기 계 류	96	67	94	82	96	64
	철 강 · 비 철 금 속	83	66	79	79	82	67
	석 유 화 학	89	72	86	81	88	72
	자 동 차	92	64	88	88	91	60
	섬 유 류	104	81	104	79	107	69
	플 란 트 · 해 외 건 설	109	78	106	87	109	78
	신 재 생 에 너 지	103	88	100	81	111	84
	선 박	114	70	102	88	112	70
	문 화 컨 텐 츠	114	83	100	83	114	83
	해 운	105	65	110	69	113	65
수출 지역	미 국 ( 북 미 )	89	73	89	84	91	69
	중 동 국	95	71	95	79	97	69
	일 본	95	63	91	77	89	61
	유 로 존	98	67	87	82	103	68
	동 남 아	98	68	95	74	97	70
	중 남 미	90	83	87	94	93	67
	중 동	92	69	95	67	89	67



### 3. 수출기업 업황 평가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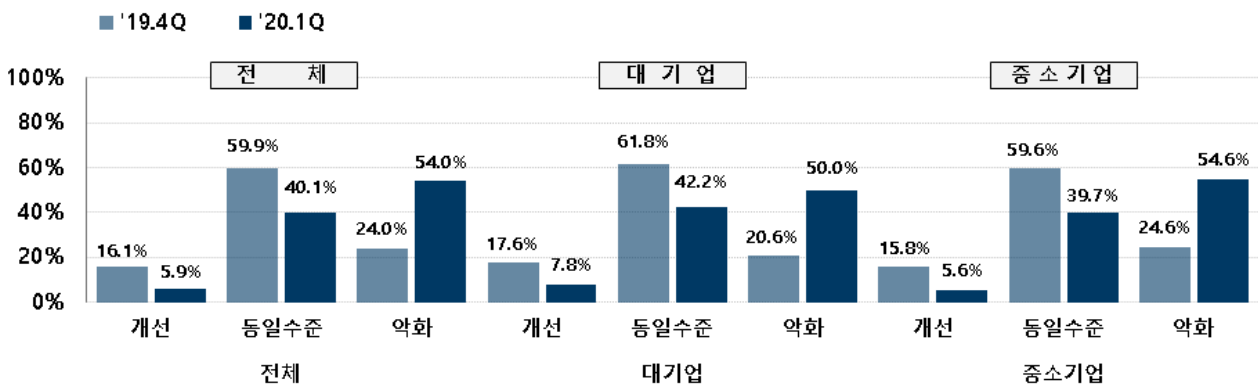
#### 가. 수출 업황 평가 분포 현황 (응답 기업 454개사 대상)

#### 수출 업황, 전기대비 '악화' 54.0% · '개선' 5.9%로 악화 우세

- 전기대비 수출업황 '개선' 응답 비율은 10.1%p, '동일수준'은 19.8%p 감소한 반면, '악화' 응답 비율은 30.0%p 증가
- (규모별) 대기업의 '악화' 응답 비율은 29.4%p 증가한 50.0%, 중소기업 '악화' 응답 비율은 30.0%p 증가한 54.6%

#### 1분기 수출 업황 평가 : 기업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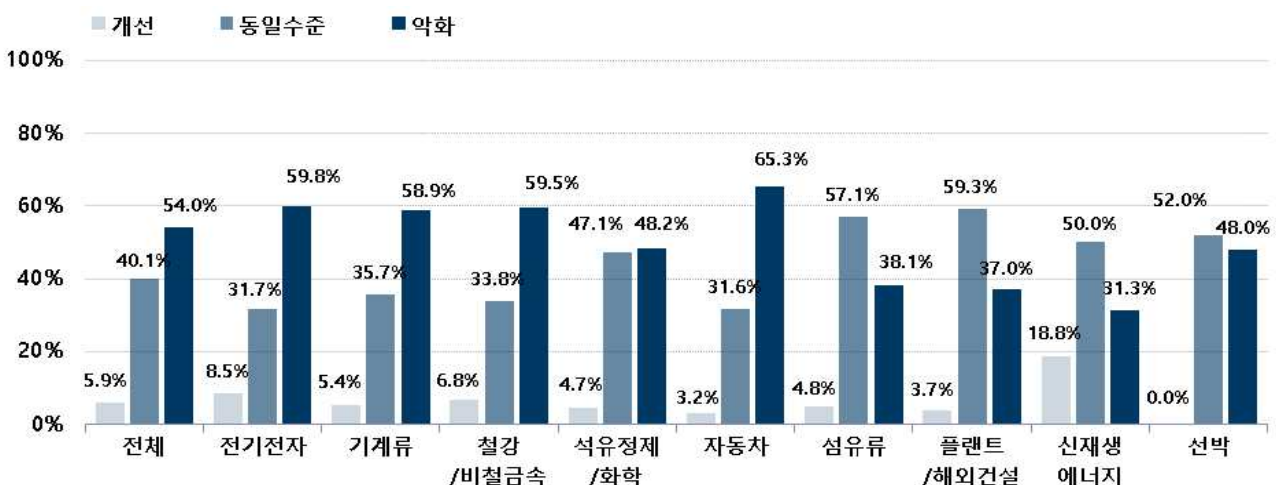
(응답 기업 수 454, 단위 : %)



- (산업별) '개선' 비중이 신재생에너지(18.8%)가 가장 높고, '악화' 비중은 자동차(65.3%), 전기전자(59.8%), 철강/비철금속(59.5%), 플랜트/해외건설(59.3%) 등이 높은 가운데 산업 전반적으로 '악화' 응답 증가

#### 1분기 수출 업황 평가 : 산업별

(응답 기업 수 45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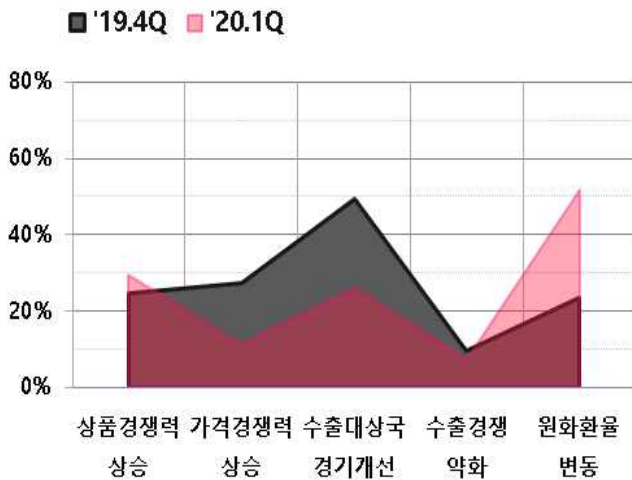
## 나. 수출업황 '개선' 원인 ('개선' 응답 기업 27개사 대상)

### '원화환율 변동'(51.9%), '상품경쟁력 상승'(29.6%) 최다 응답

- 수출 업황 개선 원인은 '원화환율 변동'(51.9%)과 '상품경쟁력 상승'(29.6%)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전기대비 '원화 환율 변동' 응답률이 28.6%p 상승, 반면 '수출대상국 경기 개선' 응답률은 23.4%p 하락

### 1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개선' 응답 기업 수 27, 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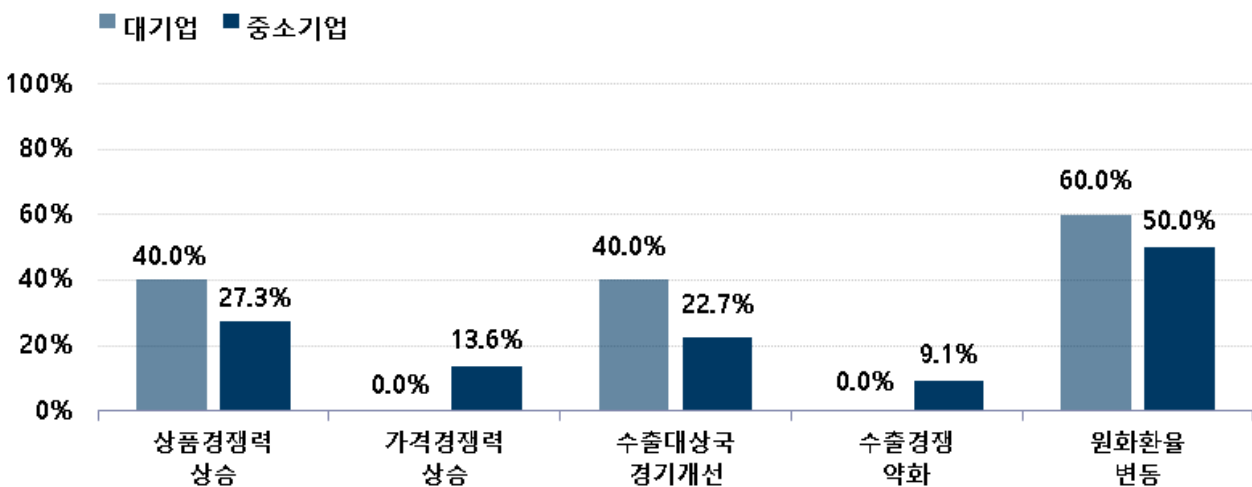


(%)	'19.4Q	'20.1Q
상품경쟁력 상승	24.7%	29.6%
가격경쟁력 상승	27.4%	11.1%
수출대상국 경기개선	49.3%	25.9%
수출경쟁 약화	9.6%	7.4%
원화환율 변동	23.3%	51.9%

- (규모별) 업황 개선 원인으로 대기업(60.0%)과 중소기업(50.0%) 모두 '원화환율 변동'에 대해 가장 높게 응답, 대기업은 수출 대상국 경기 개선도 40% 응답

### 1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 기업 규모별

('개선' 응답 기업 수 27, 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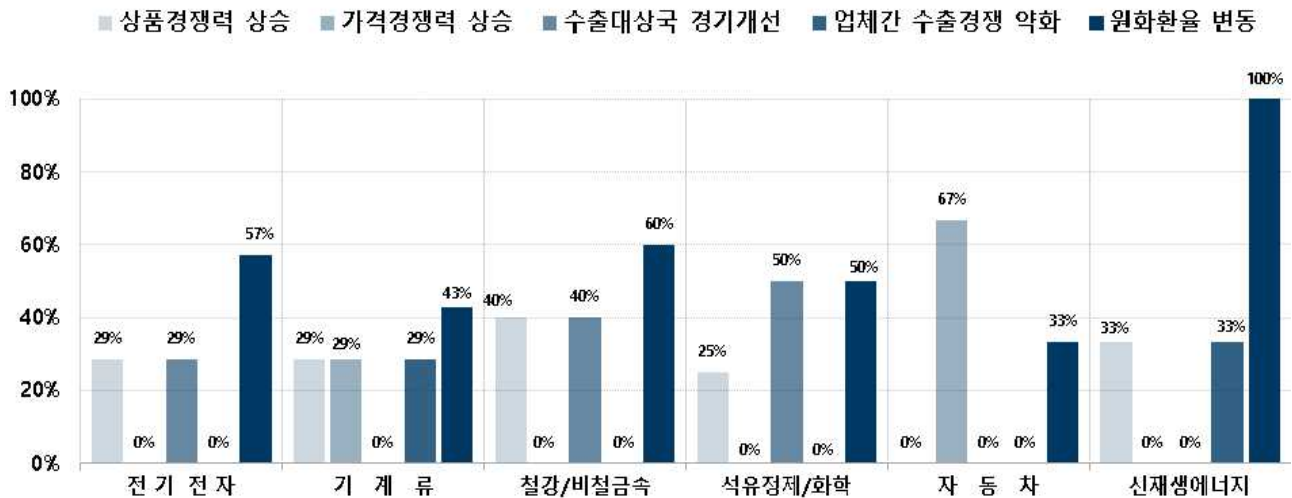




- (산업별) 전기전자, 철강/비철금속, 석유정제/화학에서 업황 개선의 주요 원인을 '원화환율 변동' 선택
- '가격경쟁력 상승'을 높게 응답한 산업은 자동차(67%), 기계류(270%)
- '수출대상국 경기 개선' 응답 비중이 높은 산업은 석유/정제산업(50%), 철강/비철금속(40%), 전기 전자(29%)

### 1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 산업별

(‘개선’ 응답 기업 수 27, 복수응답, 단위 : %)



- (지역별) 미국 수출 기업들은 수출업황 개선 요인으로 '원화환율 변동(83.3%)'을 높게 응답



###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개선' 요인

(단위 : %)

구분		상품경쟁력 상 승	가격경쟁력 상 승	수출대상국 경기개선	수출경쟁 약 화	원화환율 변 동	신 제 품 개 발	코로나19 로 인 한 수요증가
전 체		29.6%	11.1%	25.9%	7.4%	51.9%	3.7%	3.7%
규 모	대 기 업	40.0%	0.0%	40.0%	0.0%	60.0%	0%	0%
	중 소 기 업	27.3%	13.6%	22.7%	9.1%	50.0%	4.5%	4.5%
산 업	전 기 전 자	28.6%	0.0%	28.6%	0.0%	57.1%	0%	0%
	기 계 류	28.6%	28.6%	0.0%	28.6%	42.9%	14.3%	0%
	철 강	40.0%	0.0%	40.0%	0.0%	60.0%	0%	0%
	비 철 금 속	40.0%	0.0%	40.0%	0.0%	60.0%	0%	0%
	석 유 화 학	25.0%	0.0%	50.0%	0.0%	50.0%	0%	25.0%
	자 동 차	0.0%	66.7%	0.0%	0.0%	33.3%	33.3%	0%
	섬 유 류	0.0%	100.0%	0.0%	0.0%	0.0%	0%	0%
	플 랜 트	100.0%	0.0%	0.0%	0.0%	0.0%	0%	0%
	해 외 건 설	100.0%	0.0%	0.0%	0.0%	0.0%	0%	0%
신 재 생 에 너 지	33.3%	0.0%	0.0%	33.3%	100.0%	0%	0%	
문 화 컨 텐 츠	0%	0%	100%	0%	100%	0%	0%	
수 출 지 역	미 국 (북 미)	16.7%	8.3%	33.3%	0.0%	83.3%	0%	0%
	중 국	75.0%	0.0%	25.0%	0.0%	25.0%	0%	0%
	일 본	100.0%	0.0%	100.0%	0.0%	0.0%	0%	0%
	유 로 존	0.0%	20.0%	20.0%	20.0%	40.0%	20%	0%
	동 남 아	50.0%	0.0%	0.0%	0.0%	0.0%	0%	50%
	중 남 미	0.0%	100.0%	0.0%	0.0%	0.0%	0%	0%
	중 동	50.0%	0.0%	0.0%	50.0%	50.0%	0%	0%

주 : 총 27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 다. 수출업황 '악화' 원인 ('악화' 응답 기업 245개사 대상)

### '수출대상국 경기 둔화'(95.1%), '원화환율 변동'(19.2%) 최다 응답

- 수출 업황 악화 원인은 '수출대상국 경기 둔화'(95.1%), '원화환율 변동'(19.2%), '업체간 수출 경쟁 심화'(11.4%)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전기대비 '수출대상국 경기둔화'는 16.8%p 증가, '가격경쟁력 하락'은 22.2%p 감소

### 1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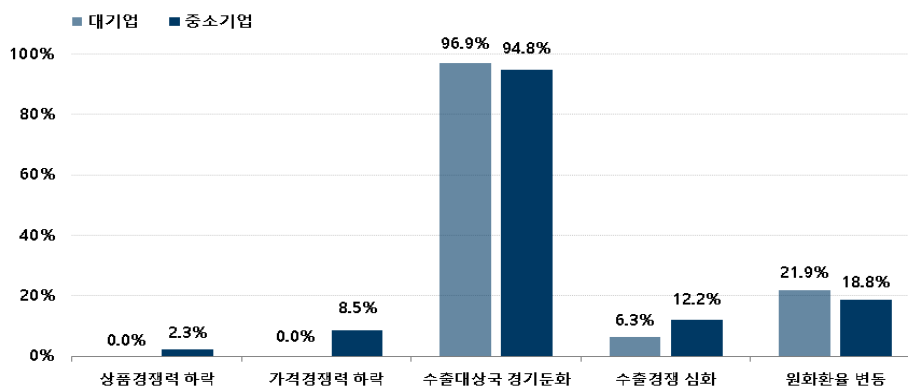
('악화' 응답 기업 수 245, 복수응답, 단위 : %)



- (규모별)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업황 악화의 주요 원인을 '수출대상국 경기 둔화', '원화환율 변동', '업체간 수출 경쟁 심화' 순으로 선택
-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출대상국 경기 둔화' 응답률이 각각 전기대비 23.5%p, 15.8%p 증가한 반면, '가격경쟁력 하락' 응답률은 각각 전기대비 20.0%p, 22.5%p 감소,

### 1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 기업규모별

('악화' 응답 기업 수 245, 복수응답, 단위 : %)



- (지역별) 동남아 수출기업들은 '수출대상국 경기 둔화' 응답 비중(87.2%)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반면, '원화환율 변동(25.6%)', '가격경쟁력 하락(15.4%)'이 높음.





###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악화' 요인

(단위 : %)

구분		상품경쟁력 하락	가격경쟁력 하락	수출대상국 경기둔화	수출경쟁 심화	원화환율 변동	보호무역 여파
전 체		2.0%	7.3%	95.1%	11.4%	19.2%	1.6%
규 모	대 기 업	0.0%	0.0%	96.9%	6.3%	21.9%	0.0%
	중 소 기 업	2.3%	8.5%	94.8%	12.2%	18.8%	1.9%
산 업	전 기 전 자	2.0%	14.3%	98.0%	6.1%	20.4%	0.0%
	기 계 류	2.6%	6.6%	94.7%	6.6%	19.7%	1.3%
	철강·비철금속	0.0%	9.1%	95.5%	22.7%	22.7%	4.5%
	석 유 화 학	4.9%	4.9%	90.2%	17.1%	14.6%	0.0%
	자 동 차	3.2%	6.5%	96.8%	3.2%	17.7%	1.6%
	섬 유 류	0.0%	0.0%	100.0%	12.5%	25.0%	12.5%
	플랜트·해외건설	0.0%	0.0%	100.0%	0.0%	20.0%	0.0%
	신재생에너지	0.0%	0.0%	100.0%	20.0%	0.0%	0.0%
	선 박	0.0%	0.0%	100.0%	0.0%	25.0%	0.0%
	문 화 컨 텐 츠	0.0%	0.0%	80.0%	40.0%	20.0%	0.0%
	해 운	0.0%	0.0%	100.0%	0.0%	28.6%	0.0%
수출 지역	미 국 ( 북 미 )	1.4%	7.1%	95.7%	8.6%	22.9%	1.4%
	중 국	0.0%	5.5%	98.2%	3.6%	20.0%	0.0%
	일 본	9.1%	9.1%	90.9%	13.6%	9.1%	9.1%
	유 로 존	2.8%	5.6%	100.0%	16.7%	16.7%	2.8%
	동 남 아	0.0%	15.4%	87.2%	15.4%	25.6%	0.0%
	중 남 미	0.0%	0.0%	100.0%	50.0%	0.0%	0.0%
	중 동	0.0%	0.0%	100.0%	30.0%	0.0%	0.0%

주 : 총 245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 Ⅱ. '20년 2분기 수출 전망

### 1. 수출선행지수 추이

#### 2분기 수출선행지수 전년동기대비 0.4%, 전기대비 0.8% 하락

- '20년 2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17.5로 수출 경기의 기준이 되는 전년동기대비로는 0.4% 하락, 전기대비로도 0.8% 하락
- 수출선행지수가 2분기 연속 하락하고 수치 절대 수준도 낮아 수출 둔화세는 계속 유지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충격이 2분기에 접어 들면서 심화되고 있어 실제 수출 하락 폭은 선행지수 하락 폭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
- 수출선행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인 수출대상국 경기, 수출용 수입액, 제조업 신규주문 등이 최근 계속 하향 폭을 더 확대

수출 선행지수 추이

구분	2018				2019				2020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수출선행지수	117.1	120.1	121.9	123.2	123.6	117.9	119.4	119.4	118.4	<b>117.5</b>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7.2	3.7	8.3	6.3	5.5	△1.8	△2.1	△3.1	△4.2	<b>△0.4</b>
전기대비 증감률(%)	1.1	2.6	1.5	1.1	0.3	△4.6	1.2	0.0	△0.9	<b>△0.8</b>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의 전기대비차(p)	△0.6	△3.5	4.6	△2.0	△0.8	△7.4	△0.3	△1.0	△1.2	<b>3.8</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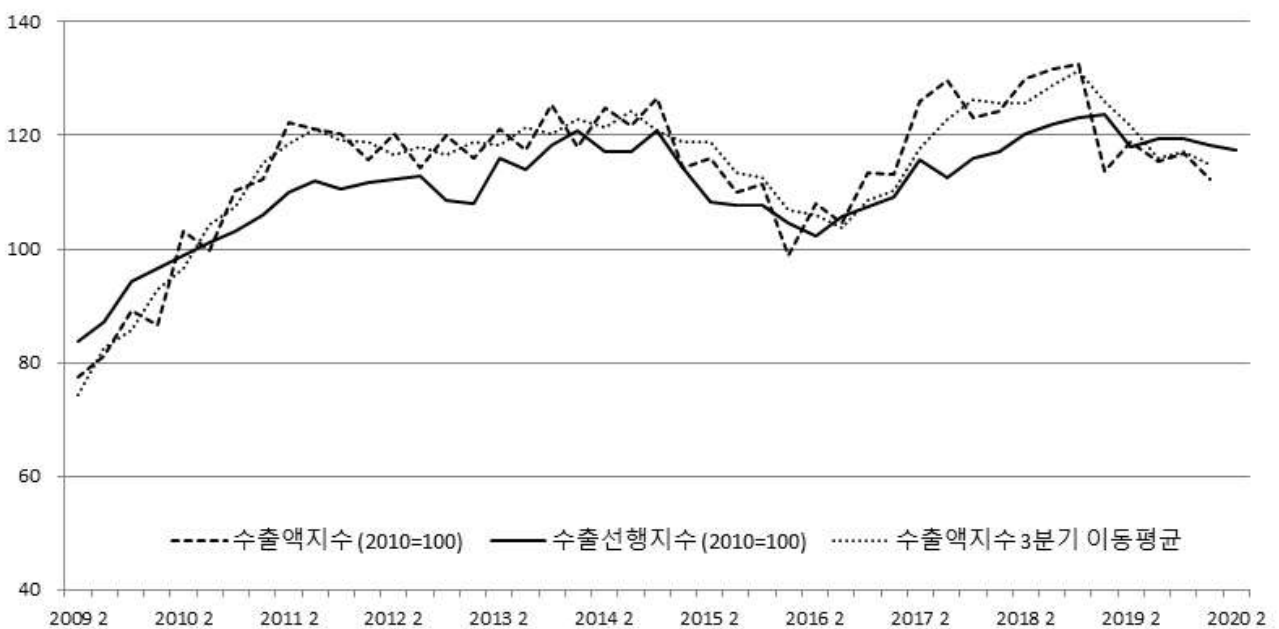
주 : 수출선행지수는 신규 수치 산출시 과거 선행지수 수치도 함께 변경



###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실적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추이



###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액 지수 추이





## 코로나19 확산 영향 확대로 글로벌 경기 위축·유가 급락으로 수출 단가 하락 지속

- **수출대상국 경기** :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중국은 2~3월, 미국·유로존 등은 3월 경기선행지수 하락, 1분기 WTO 상품무역지수도 전분기 대비 하락
  - 1분기의 경우 1~2월 수치는 비교적 안정적인 가운데 3월 수치 하락만 반영되었으나, 세계적인 고강도 사회 격리, 소비 위축 등으로 3월 이후 경기 및 무역량은 더 크게 위축 가능
  - ※ 수출대상국 경기지수(2010=100)<sup>1)</sup> : 148.2('19.11)→148.8(12)→147.7('20.1)→147.8(2)→ **136.8(3)**
  - ※ Goods Trade Barometer(WTO, 2010=100) : 96.3('19.1Q)→ 96.3(2Q)→ 95.7(3Q)→ 96.6(4Q)→ **95.7('20.1Q)**
- **수출용 수입액 지수**는 1분기까지는 수출 활동이 선방하면서 전년동기(1.1%) 및 전분기(1.6%)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3월부터 유가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향후 감소세 전환 전망
  - ※ 수출용 수입액지수(2010=100): 93.5('19.10)→95.0(11)→100(12)→106.8('20.1)→96.3(2)→**90.1(3)**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1월(52.0)과 2월(49.8)에는 전년 하반기 수준을 소폭 상회하며 상승세를 보였으나, 3월 전년동월대비 26.5% 하락한 42.2, 4월은 47.6% 하락한 27.1
  -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 : 49.1('19.10)→47.2(11)→46.8(12)→52.0('20.1)→49.8(2)→**42.2(3)→27.1(4)**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 :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에서 매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주문, 생산, 고용, 재고 등의 설문을 실시해 발표하는 지수로 우리나라 수출액과 3~6개월의 선행성을 나타냄.

- **가격 경쟁력** : 주요국 경제 침체 전망 속에 안전자산인 달러화 강세가 이어져 1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년동기대비 6.1% 상회한 달러당 1,193.6원을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소비 위축 심화 등으로 가격 경쟁력 효과는 일정 상쇄
  - ※ 원/달러환율(분기평균) : 1,125.1('19.1Q)→1,165.9(2Q)→1,193.2(3Q)→1,175.8(4Q)→**1,193.6('20.1Q)**
  - ※ 원/달러환율(월 평균) : 1,167.5('19.11) → 1,175.8(12)→ 1,164.3('20.1)→ 1,193.8(2)→ **1,220.1(3)**
- **실질실효환율\*** :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원화의 실질 가치도 전년동기대비 5.2%, 전기대비 1.4% 하락

\* **실질실효환율** : 교역상대국의 환율을 교역량으로 가중평균한 뒤 물가변동을 감안해 산출하는 지표로, 2010년=100을 기준으로 상승하면 통화가치 고평가를, 하락하면 통화가치 저평가를 나타냄.

※ 원화 실질실효환율(BIS) : 111.8('19.1Q) → 108.4(2Q) → 106.3(3Q) → 107.4(4Q) → **106.0('20.1Q)**

1) GDP 성장률을 반영한 경기 지수 기준



- **수출물가** : 반도체 단가는 상승 전환했으나, 유가 급락 효과가 2분기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출물가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수출물가지수 추이(2015=100, 달러기준)

: 94.4('19.10)→ 93.7(11)→ 93.7(12)→ 94.0('20.1)→ 92.5(2)→ **89.5(3)**

※ 수출물가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달러기준)

: △6.3 ('19.1Q) → △8.3 (2Q) → △10.6 (3Q) → △9.6 (4Q) → **△8.1 ('20.1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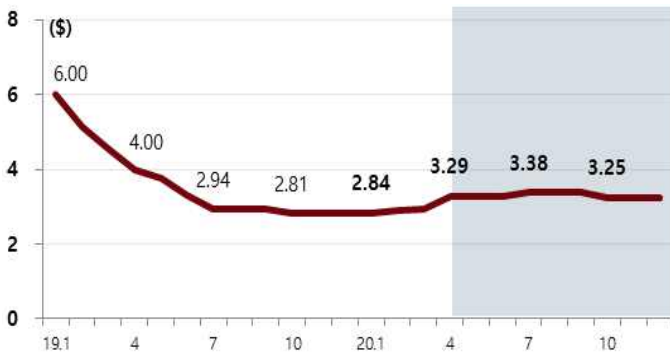
- **D램** 단가는 1분기부터 반등을 지속해 6월 이후 전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올 3분기까지는 상승을 이어갈 전망, 단 코로나19발 경기 침체와 스마트폰 구매 감소가 심화될 경우 가격 하방 전환 가능

※ D램 가격 전망(\$, DDR4\_8Gb 고정가격, D램 익스체인지) : 2.84('20.1)→ 2.94(3)→ 3.29(4)→ 3.38(7)→ 3.25(10)

- **유가**는 4월 OPEC+가 감산에 합의했으나 근본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위축이 회복되기 전에는 공급과잉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 주요 기관들의 2020년 평균 유가 전망도 배럴당 30~40달러대 수준으로 하향했으며 당분간 하향세 지속 전망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70.9('19.4)→64.9(12)→64.3('20.1)→54.2(2)→33.7(3)→**20.6(4)**

D램 가격 전망



자료 : DrameXchage(DDR4 8Gb 고정가격 기준)

유가 추이



자료 : Petronet (두바이유 기준)

- **주요 산업** : 반도체는 단가 상승 및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수요 증가 측면도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 위축에 따른 소비 감소 및 5G 통신망 구축 지연 등으로 수요 증가 제한적, 자동차는 해외 공장 섯다운 및 주요국 달러 휴업 지속, 소비 위축 영향으로 수출 급감 가능

※ 반도체 수출물량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9.7 ('19.9)→ 9.6 (10)→ 11.4 (11)→ 32.0 (12)→ **41.6 ('20.1)→ 51.2(2)→ 25.3(3)**

- **석유화학, 석유제품**은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소비 수요 감소와 국제 유가 급락으로 수출 단가 및 수출액 하락 불가피, 동 품목이 우리 수출에서 약 15% 내외라 전체 수출액 하락 견인 전망



## '20년 2분기 수출액 전년동기대비 13~15% 하락 전망

- 수출선행지수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세계 경기 위축, 국제 유가 하락세 유지 등으로 2분기 수출은 하락 폭을 확대해 전년동기대비 13~15% 내외 감소할 전망
- 2분기에 미국·EU 등 주요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회 봉쇄에 의한 수요 감소도 본격적으로 나타나 수출 감소 효과는 2분기에 가장 크게 반영될 것으로 예측
  - 2분기 중 4월 감소 효과가 가장 크고 분기 후반으로 갈수록 사회 봉쇄령 해제 및 각국의 부양 정책 가시화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WTO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상품 교역량이 전년대비 12.9~31.9%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금융 위기(2009년) 당시 세계 상품 교역량은 전년대비 12.1% 감소했는데, 이번 코로나19 시기에는 각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여행 제한 등을 펼치며 경제 전 분야 활동을 인위적으로 위축시키고 있어 금융 위기 때보다 무역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
-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 수출은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3분기까지 4분기 동안 감소를 경험했으며 2009년 1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5.2%까지 하락, 연간으로는 13.8% 하락(2009년)
  - 금융 위기 이전 약 2년간 10~30% 내외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겪은 뒤 경제 충격으로 급격하게 수출이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냄.
- 코로나19 영향이 시작된 2020년의 경우 금융 위기 때와는 달리 미중 무역 분쟁, 세계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이전 4분기 동안 계속 수출 둔화를 유지해 온 상태여서 우리 수출의 추가 하락폭은 금융 위기 수준 이내일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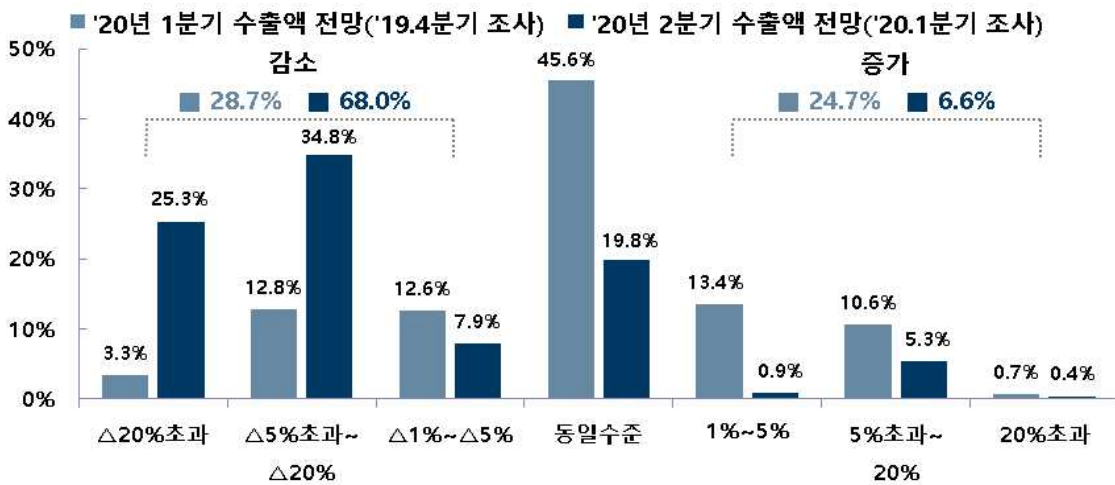
## 2. 수출기업 2분기 수출액 전망

### 전년동기대비 수출액 '감소' 전망 68.0%, '증가' 전망 6.6%

- 전년동기대비 '수출액 감소' 전망이 68.0%인 반면, '수출액 증가' 전망은 6.6%에 그쳐 수출액 감소 전망이 우세하며, '수출액 감소' 전망은 전기대비 39.3%p 증가한 반면, '수출액 증가' 전망 비중은 전기대비 18.1%p 감소

#### '20년 2분기 수출액 전망 (전년동기대비)

(응답 기업 수 45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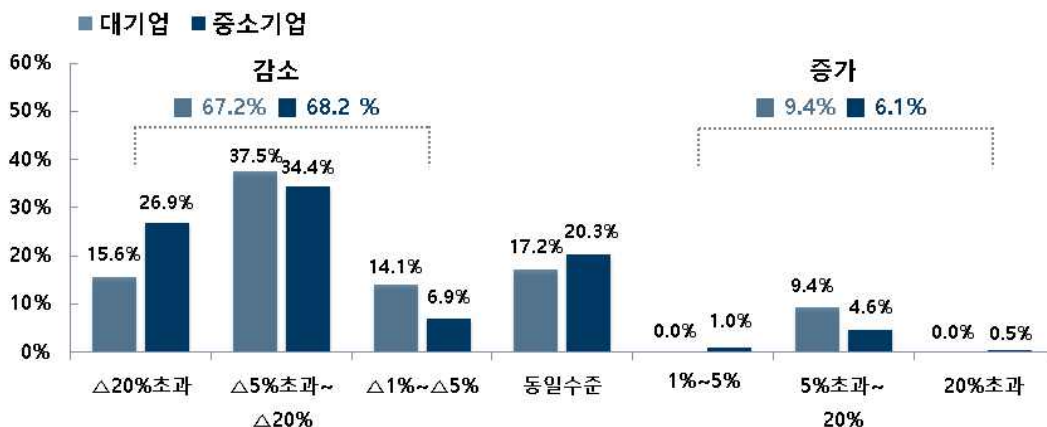


\*모름/응답거절 : 1.1%( '19.4분기 조사), 5.5%( '20.1분기 조사)

- (규모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감소' 응답을 각각 67.2%, 68.2%로 답했으며, 각각 전기 대비 46.6%p, 38.2%p 증가
- '증가' 응답은 각각 전기대비 17.1%p, 18.2%p 감소

#### '20년 2분기 수출액 전망 : 기업규모별 (전년동기대비)

(응답 기업 수 245,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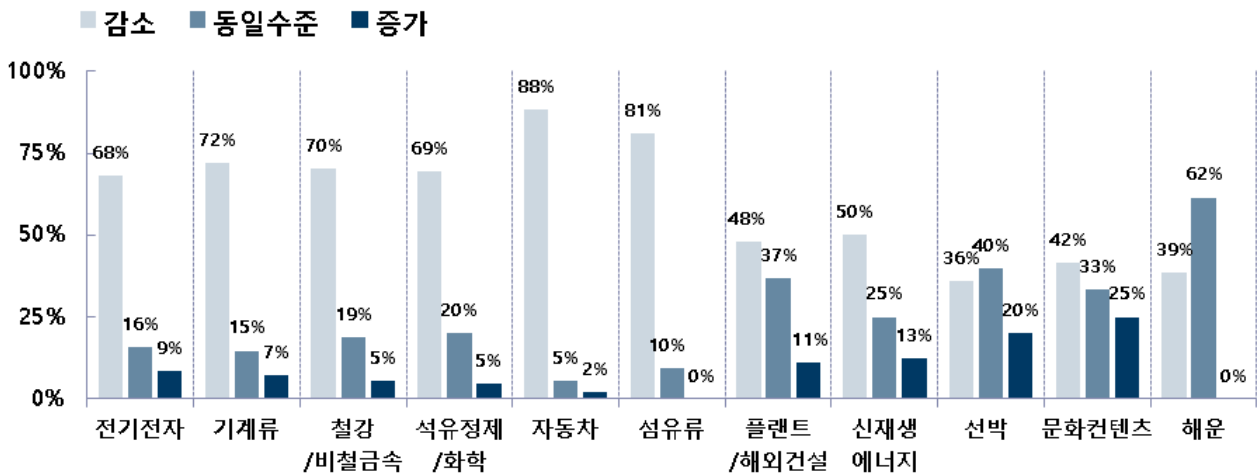




- (산업별) 선박(40%), 해운(62%)은 전년동기대비 수출액 '동일 수준' 전망이 우세한 반면, 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는 '감소' 전망이 우세
- 문화콘텐츠(25%), 선박(20%), 신재생에너지(13%) 등은 '증가' 전망 응답 비율이 타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20년 2분기 수출액 전망 : 산업별 (전년동기대비)

(응답 기업 수 45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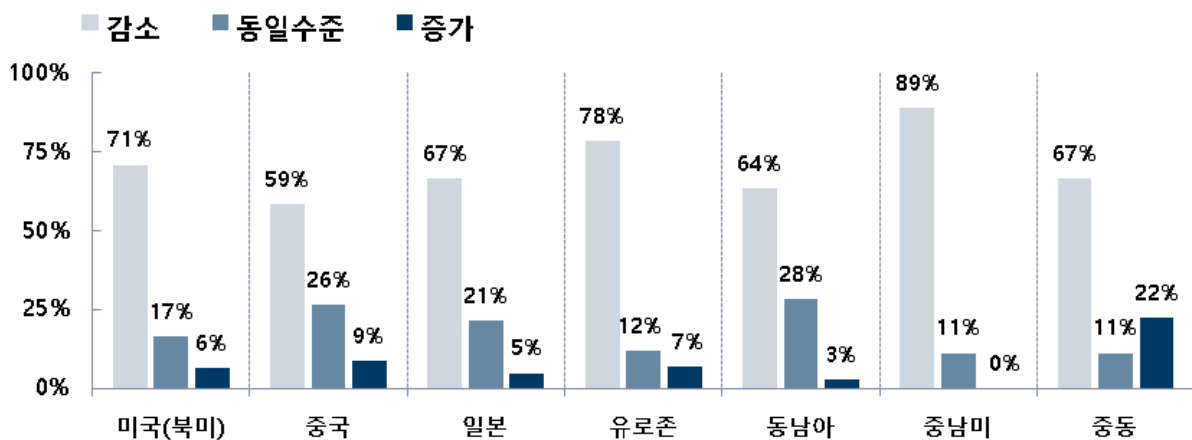


주 : 모름/거절 비율은 제외

- (지역별) 미국, 중국 등 모든 조사대상 지역에서 전년동기대비 수출액 '감소' 전망 우세
- 중남미, 중동, 유로존은 '감소' 응답률이 각각 75.6%p, 50.9%p, 49.4%p 증가, 미국, 일본은 '증가' 응답률이 각각 23.6%p, 24.4%p 감소

### '20년 2분기 수출액 전망 :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응답 기업 수 454, 단위 : %)



주 : 모름/거절 비율은 제외





'20년 2분기 수출액 전망 증감율 (전년동기대비)

(단위 : %)

구분		△20 % 초과	△5% 초과 ~ △20%	△1% ~ △5%	동일 수준	1% ~ 5%	5% 초과 ~ 20%	20% 초과
전 체		25.3%	34.8%	7.9%	19.8%	0.9%	5.3%	0.4%
규 모	대 기 업	15.6%	37.5%	14.1%	17.2%	0.0%	9.4%	0.0%
	중 소 기 업	26.9%	34.4%	6.9%	20.3%	1.0%	4.6%	0.5%
산 업	전 기 전 자	24.4%	37.8%	6.1%	15.9%	2.4%	4.9%	1.2%
	기 계 류	28.7%	34.1%	9.3%	14.7%	0.8%	6.2%	0.0%
	철강·비철금속	28.4%	32.4%	9.5%	18.9%	1.4%	2.7%	1.4%
	석 유 화 학	24.7%	38.8%	5.9%	20.0%	0.0%	4.7%	0.0%
	자 동 차	34.7%	38.9%	14.7%	5.3%	0.0%	2.1%	0.0%
	섬 유 류	28.6%	38.1%	14.3%	9.5%	0.0%	0.0%	0.0%
	플랜트·해외건설	14.8%	22.2%	11.1%	37.0%	0.0%	11.1%	0.0%
	신 재생 에 너 지	12.5%	37.5%	0.0%	25.0%	0.0%	12.5%	0.0%
	선 박	20.0%	16.0%	0.0%	40.0%	4.0%	16.0%	0.0%
	문 화 컨 텐 츠	8.3%	25.0%	8.3%	33.3%	0.0%	25.0%	0.0%
해 운	7.7%	23.1%	7.7%	61.5%	0.0%	0.0%	0.0%	
수출 지역	미 국 ( 북 미 )	26.0%	37.0%	7.9%	16.5%	0.8%	4.7%	0.8%
	중 국	16.0%	34.0%	8.5%	26.4%	1.9%	6.6%	0.0%
	일 본	31.0%	33.3%	2.4%	21.4%	0.0%	4.8%	0.0%
	유 로 존	31.7%	40.0%	6.7%	11.7%	0.0%	6.7%	0.0%
	동 남 아	21.6%	29.7%	12.2%	28.4%	0.0%	2.7%	0.0%
	중 남 미	44.4%	44.4%	0.0%	11.1%	0.0%	0.0%	0.0%
	중 동	33.3%	16.7%	16.7%	11.1%	5.6%	11.1%	5.6%

주 : 총 454개사 <모름/거절(25개사)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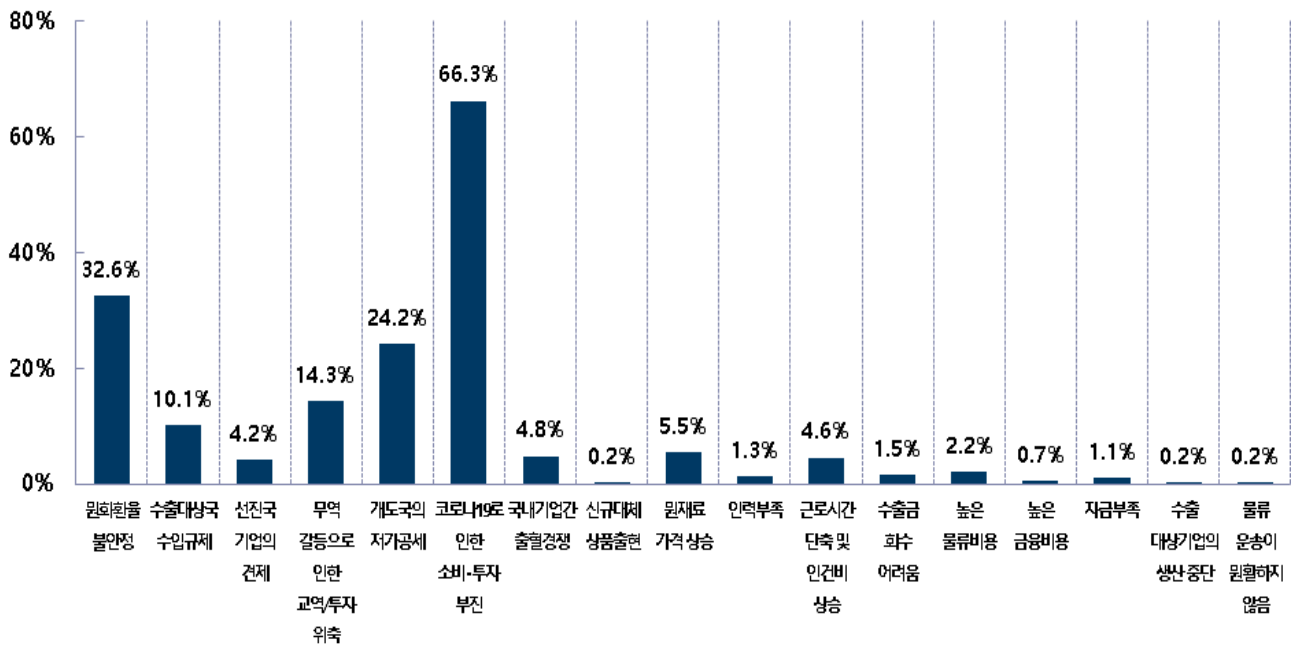
###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투자 부진’(66.3%), ‘원화환율 불안정’(32.6%) 순**

- 산업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투자 부진’의 응답률이 가장 높음
- 전기대비 ‘원화환율 불안정(32.6%)’, ‘원재료 가격 상승(5.5%)’, ‘개도국의 저가공세(24.2%)’ 응답이 각각 4.0%p, 3.3%p, 0.2%p 증가
- ‘국내기업 간 출혈경쟁(4.8%)’, ‘수출대상국의 수입규제(10.1%)’, ‘선진국 기업의 견제(4.2%)’ 등은 각각 39.7%p, 20.5%p, 4.4%p 감소

#### ‘20년 2분기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

(응답 기업 수 454, 단위 : %, 1순위+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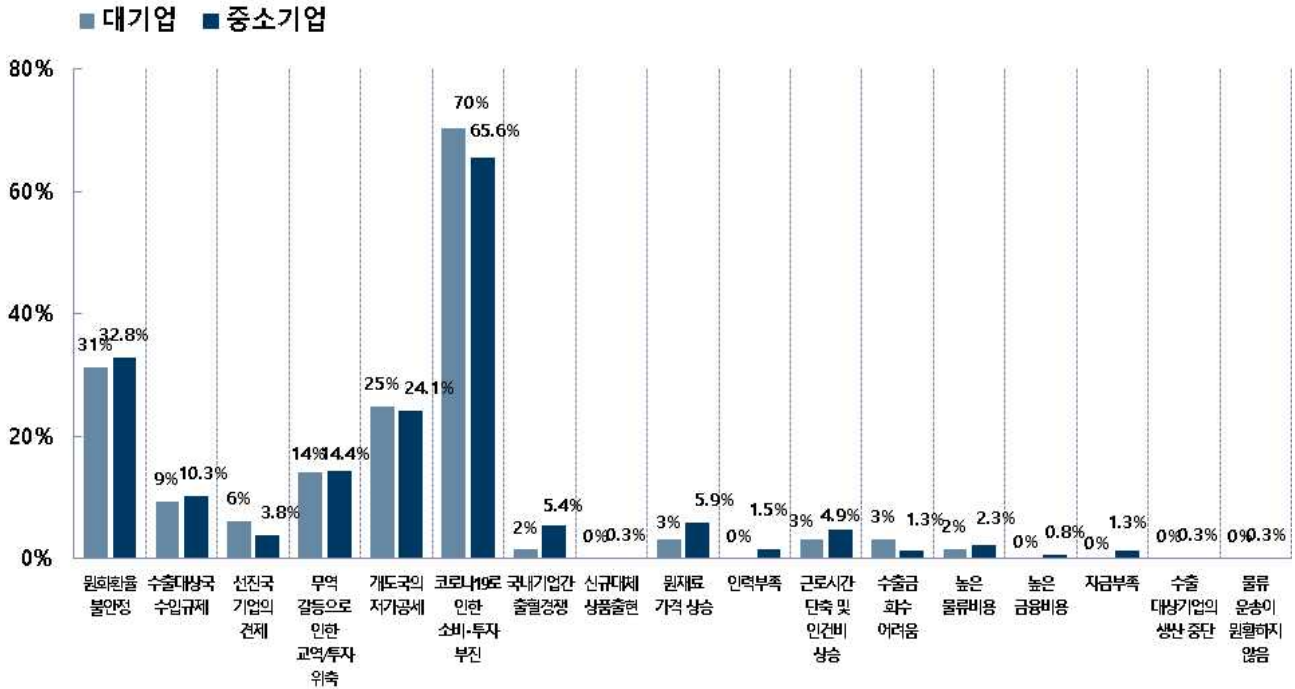


- (산업별) 선박(52.0%), 해운(38.5%), 문화컨텐츠(41.7%) 등 업종에서는 ‘원화환율 불안정’ 응답률 상승, 신재생에너지(43.8%), 플랜트/해외건설(18.5%) 등에서는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 응답률 상승
- (규모별)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투자 부진’을 각각 70.3%, 65.6%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응답
- ‘국내기업 간 출혈경쟁’ 응답률은 대기업(26.4%p ↓), 중소기업(19.5%p ↓) 모두 감소한 반면, ‘원화환율 불안정’ 응답률은 대기업(6.3%p ↑), 중소기업(3.5%p ↑) 모두 증가



## '20년 2분기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 : 기업규모별

(응답 기업 수 454, 단위 : %, 1순위+2순위)





### 기업규모별 · 산업별 수출 애로요인

(단위 : %)

구분	원화환율 불안정	수출 대상국의 수입규제 (고관세)	선진국 기업의 견제	무역갈등 여파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	코로나19 여파	국내기업 출혈경쟁	원재료 가격 상승	
<b>전 체</b>	32.6%	10.1%	4.2%	14.3%	24.2%	66.3%	4.8%	5.5%	
<b>규 모</b>	대 기 업	31.3%	9.4%	6.3%	14.1%	25.0%	70.3%	1.6%	3.1%
	중 소 기 업	32.8%	10.3%	3.8%	14.4%	24.1%	65.6%	5.4%	5.9%
<b>산 업</b>	전 기 전 자	36.6%	11.0%	2.4%	14.6%	23.2%	69.5%	2.4%	7.3%
	기 계 류	31.8%	6.2%	7.0%	17.1%	23.3%	67.4%	5.4%	4.7%
	철 강 · 비 철 금 속	25.7%	18.9%	0.0%	16.2%	28.4%	62.2%	4.1%	6.8%
	석 유 화 학	37.6%	5.9%	4.7%	16.5%	24.7%	70.6%	7.1%	8.2%
	자 동 차	27.4%	7.4%	5.3%	15.8%	20.0%	76.8%	2.1%	6.3%
	섬 유 류	23.8%	14.3%	0.0%	9.5%	28.6%	81.0%	0.0%	0.0%
	플 랜 트 · 해 외 건 설 신 재 생 에 너 지	25.9%	0.0%	7.4%	3.7%	18.5%	51.9%	7.4%	0.0%
	자 원 개 발	43.8%	18.8%	12.5%	0.0%	43.8%	43.8%	12.5%	6.3%
	자 원 개 발	0.0%	100.0%	0.0%	0.0%	100.0%	0.0%	0.0%	0.0%
	선 박	52.0%	12.0%	0.0%	4.0%	16.0%	68.0%	8.0%	0.0%
	문화컨텐츠	41.7%	25.0%	8.3%	0.0%	16.7%	41.7%	0.0%	0.0%
해 운	38.5%	15.4%	0.0%	23.1%	23.1%	61.5%	15.4%	7.7%	
<b>수출 지역</b>	미국(북미)	29.1%	7.9%	5.5%	16.5%	27.6%	64.6%	2.4%	7.9%
	중 국	43.4%	13.2%	3.8%	17.0%	19.8%	69.8%	5.7%	6.6%
	일 본	31.0%	19.0%	2.4%	16.7%	19.0%	66.7%	4.8%	4.8%
	유 로 존	28.3%	6.7%	1.7%	16.7%	21.7%	73.3%	3.3%	5.0%
	동 남 아	33.8%	9.5%	2.7%	8.1%	31.1%	58.1%	4.1%	1.4%
	중 남 미	66.7%	11.1%	0.0%	0.0%	22.2%	55.6%	0.0%	11.1%
	중 동	11.1%	5.6%	16.7%	16.7%	33.3%	61.1%	27.8%	0.0%

주 : 총 454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 <부록> 수출기업 업황 설문조사 및 지수 개요

### 1. 설문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느끼는 종합적인 수출여건을 기업별, 업종별로 조사하여, 기업경영 계획과 정부의 무역 지원 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 기간 및 방법

- 조사 대상 기간
  - 업황 평가 : 조사 직전 분기
  - 실적 전망 : 조사 해당 분기
- 조사 실시 기간 : 2020년 4월 6일~10일
- 모집단 및 표본
  - 모집단 : 12개 주요산업 중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 표본크기 : 대중소기업 454개 업체 (대기업 64개, 중소기업 390개)
- 조사 방법 : 전화 및 이메일

###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 기업들이 해당 분기 조사 항목에 대해 매우 개선(증가·상승), 개선(증가·상승), 비슷, 악화(감소·하락), 매우 악화(감소·하락) 등 5단계 중 자신의 평가를 선택하도록 설문조사 수행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황 개선 기업 수가 악화 기업 수보다 많으면 100보다 높게, 그 반대의 경우에는 100보다 낮도록 지수화
- 지수 산출 방식 :

$$\frac{(\text{매우개선} \times 1.0 + \text{약간개선} \times 0.5 + 0 \times \text{동일} - \text{약간악화} \times 0.5 - \text{매우악화} \times 1.0)}{\text{전체 응답자수}} \times 100 + 100$$



##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수출업황	평가지수	수출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대한 평가	
	수출단가	평가지수	수출단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평가
	생산원가	평가지수	생산원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평가
수출물량	평가지수	수출물량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평가	
수출계약	평가지수	수출계약금액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평가	
자금사정	평가지수	자금사정의 개선 또는 악화에 대한 평가	

### 3. 수출 선행지수 추정 모형 및 구성요소

#### 수출 선행지수 추정 모형

- 수출선행지수는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산업별 수주 현황, 환율 등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해 수출 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
- 2010년=100 기준으로 산출되며, 2018년 1분기부터는 ISM제조업 신규주문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등을 변수로 추가하는 등 추정 모형 소폭 개정
- \* 미국공급자관리협회(ISM: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에서 매월 400여개 제조업체 대상으로 신규주문, 생산, 재고, 고용 등의 설문을 실시해 발표하는 지수

#### 지수 모형 구성 내용

구분	변수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 중국, 인도, 브라질 등</li> <li>• 외화획득용 일반수입액</li> <li>• ISM 제조업 신규주문 지수</li> </ul>
수출가격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실효환율</li> </ul>
산업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 :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li> <li>• 선박 : 해외수요 선박수주액</li> <li>• 기계 : 해외수요 기계수주액</li> </ul>